[새신자예배 초대글]

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

겨울 밤의 별이 유달리 밝은 이유는
차가운 바람에 나의 정신이 맑게 헹궈진 탓일 겁니다.
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한 한 사람의 밤을,
그를 배반한 또 한사람의 밤을 기억합니다.
한 사람은 온 세상을 위해 죽음의 길을 찾았고
제자는 그 분을 버려야만 살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.
하지만 생명을 버린 그 분은 부활하셨고
살 길이라고 믿은 배반이 깊은 절망이 되어 버린 제자를
다시 찾아 오셨습니다.
쉽게 실패하는 우리를 그분은 아십니다.
부활의 능력으로 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기 원하십니다.
부활하신 그 분을 그 제자처럼 만날 수 있기를. .

＊ 출처 : 온누리신문

http://file.cgntv.net